



[드라마부]

한 주일 먼저 본 '예수의 탄생'

12월 17일 저녁 8시 수요일성경공부시간에 우리 교회 드라마부의 성극 '예수의 탄생'이 공연되었다. 코믹적인 풍토적 요소도 어느 정도 가미 했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나 플롯은 성경의 창세기 2-4장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 첫부분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성경 내용을 기본적인 줄기로 하여 공연했다. 러닝타임 30분의 단막극이었지만 그 내용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주제였다. 연극은 전체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막 1장은 '천지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라'는 내용으로 사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그렸고, 2막 1장에서는 '새로운 언약의 선포', 2막 2장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저지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를 저지하려는 내용을 역시 사탄의 관점에서 가브리엘이 전해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곡시키는 장면을 그렸다. 3막 1장에서는 '루시퍼와 가브리엘의 싸움'과 3막 2장은 '요셉의 결단과 승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원죄'와 '예수의 탄

생'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크게 대조시키며 연기를 하는 드라마부원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조명 연출 및 최창섭 장로의 멘트와 나레이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연극을 보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의 탄생에 대한 신학적인 물음과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뜻있는 시간이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연극 곳곳에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간간히 섞어 놓았고, 특별히 각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소 코믹한 분장과 의상들이 매우 돋보였다. 연극은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몸동작뿐만 아니라, 조명과 무대 장치와 음향등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뒷받침 되어야 하는 종합 예술이다. 많은 준비와 애쓴 흔적들이 단 한순간에 뿜어져 나와야 하는 쉽지 않은 기도이다. 30분의 공연을 위해 9월부터 준비해 온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진기자

[12월 정기당회]

2004년 제직부서 및 부서장 선임

12월13일 오전6시부터 9시50분까지 대회의실에서 12월 정기당회가 열렸다. 위원회별로 2003년도를 돌아보며 사업보고를 하여 연말당회로서 결산의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이번 당회에서 결의된 주요사항이다.

2004년 교회의 제직부서를 확정하고 부서장 선임을 논의하였다. 2004년도 제직부서는 총 22개 위원회, 40개 부서, 12개 팀, 3개 찬양대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아직 확정되지 못한 부서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1월 첫 주일 유인물을 제작하여 전교인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강신후 협동장로가 섬기고 있는 서울대학교 내의 서울대학교교회에 올해 연300만의 지원금을 보냈으나, 내년에는 연600만원으로 지원폭을 늘려 학원선교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2004년도에는 교회요람을 제작한다. 그간 사용하여 온 '교인사진수첩'이란 제목이 사진이 없는 교인도 실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논의 끝에 '교회요람'으로 명명하기로 결의하고, 2004년 1월 중 발간예정으로 제작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2003년도 교인사진수첩과 비교하면, 개인별 교회직분이 추가되며 교회연혁, 행정장정 등이 추가되는 것이 다르고 결표지에는 연도표기를 넣지 않고 결표지를 재활용토록 하였다.

토의안건으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다니던 산포리교회(성북구 정릉동 소재) 재건축과 이에 따른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편집부



(청년부 중창팀)

아기 예수께 드리는 '예그리나'의 합창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21일(오늘) 4부 예배(오후 1시 30분)는 특별한 순서로 꾸며진다. 청년부 혼성 중창팀 '예그리나'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가 10여곡의 아름다운 합창을 부르게 된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여행길에 올랐던 동방박사들처럼 청년들이 많은 시간 연습한 것은 오로지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하

서이다. 청년부 혼성 중창팀 '예그리나'는 여자 9명, 남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한 귀한 결실이 오늘 4부 예배에서 거두어지게 된다.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함께 참석하여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아름다운 찬양과 화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신지민기자

아이들의 달란트 활용하기



12월 14일 시작된 유년부의 달란트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장터', '학용품 장터', '장난감 장터', '먹거리 장터', '과자 장터', '인형의 장터', '기독교 물품장터', '악세사리 장터' 이렇게 총 8개의 장터가 마련되고 준비되어졌다.

김성관 목사님의 딸 솔희는 따로 쇼핑백을 준비해올 정도로 유년부 친구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끌었던 행사였다. 달란트 잔치날인 14일 주일은 간단한 찬양과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1부 예배를 드리고 12시부터 고대하던 유년부 달란트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미 선생님들이 준비하여 사온 여러 학용품과 먹거리 등을 꾸집하고 알차게 준비하여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김혜선 선생님이 준비하신 '악세사리 장터'의 아바타 스티커였다. 웹에서도 아바타의 인기가 선풍적인데 오프라인에서도 그 인기는 대단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옆에 수첩과 싸인펜 등 학용품을 준비하신 이정자 선생님의 물품이 났을 뻔 할 정도. 아바

타 스티커는 개시 10분 만에 거의 동이 났다. 이정자 선생님이 준비하신 '학용품장터'에서는 색연필과 이쁜 그림이 그려진 수첩이 인기였다. 그 밖에 최정운 선생님이 준비하신 '먹거리장터'도 인기, 김밥 반죽에 단 돈(?) 1달란트로 아이들이 쉽게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30분 이내로 싸악~ 동이 날 정도로 달란트 시장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 예전보다 높아진 물가 때문인지 물품의 달란트가 다소 비싸서 그날 나눠준 달란트로는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기엔 모자랐다고 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출석을 잘하거나 설교시간에 안 떠들고 전도사님이 내신 문제를 맞추어 평소 달란트를 비축했던 아이들은 달란트로 충분히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적은 달란트로 많은 물품을 사지 못한 아이들과 대조를 이뤘다.

장터에 대해 더 소개하면 이은혜 선생님이 준비한 인형의 장터도 인기였는데, 온도에 따라 변하는 뽀글이 핸드폰 인형은 순식간에 여자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았고, 인형으로 된 볼펜은 정말 예뻐서 나조차도 갖고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맛난 과자와 소세지로 아이들의 군것질 거리를 채워준 임문자 선생님의 과자장터도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가

왔고, 재미난 입담으로 아이들을 웃기시는 정은수 선생님이 준비하신 장난감장터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옆에 자리하신 성운경 총무선생님의 기독교 물품 장터도 각종 성경캐릭터 엽서나 퍼즐등이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갖고 싶은 물품을 고르면서서도 천정희 선생님이 담당하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장터"의 모금함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은 달란트를 넣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는 풍성하고 알찬 달란트 시장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소 예산이 적어 그리 풍족하게 물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 달란트는 가지고 있으나 물건들이 금방 동이나 한 두 가지 밖에 못 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물건들이 남지 않고 모두 다 팔려 재고(?)가 안 남았던 것은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날 그냥 주어진 달란트가 적었기에 평소에 달란트를 꾸준히 준비한 어린이만이 많은 물품을 가질 수 있다는 교훈도 깨닫게 하는 신나고 재미나는 달란트 시장이었다.

김봉걸 교사

교회 안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주일에 4번의 예배가 있고 출석교인은 장년만 3,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일하는 많은 부서들이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이나 이름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가듯 주님의교회 같은 성도이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가 거의 없이 지낸다. 친밀한 교제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찾아서 알려주고, 숨

어 있는 교회 안의 미담이나 성도들의 궁금한 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누군가 담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다가가길 원하지만 어색해하는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기쁨과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매주일 발행되는 교회신문을 취재하고 편집하는 함줄함을 부서이다.

이전에는 함줄함이 발행 기간도 두 달에 한번 발행되었고 형식도 교회 신문이라기보다는 문예지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교회 신문의 역할로 탈바꿈을 꾀해 매주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름대로 기사 취재나 수록에 관한 원칙도 수립하면서 되도록이면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른 보도기사를 지향하게 되었다.

교회신문은 일반신문처럼 특정 또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발 빠른 소식을 전해줘야 하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기에 더욱 정확하고 신중해야 하는 영적인 소명감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해 세밀하고 빠르게 알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사보도의 신속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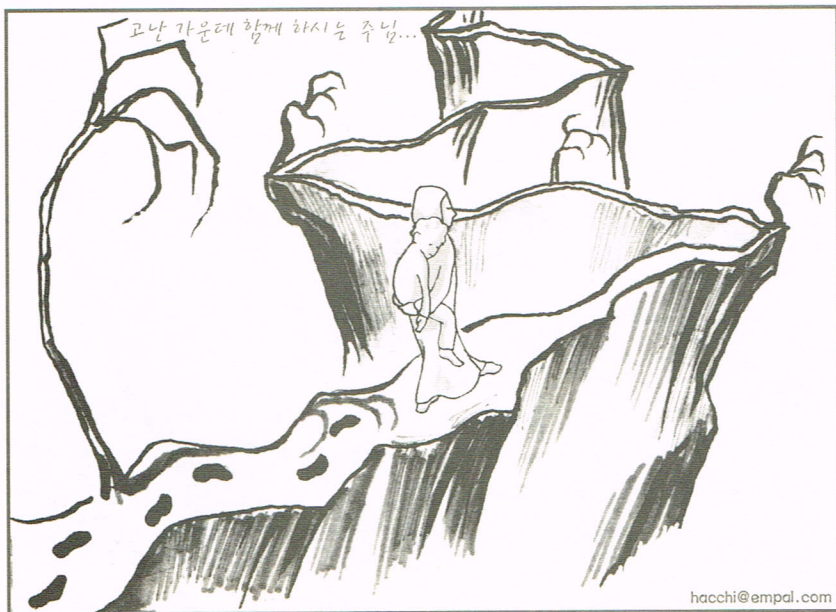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준비된 취재기와 기사편집의 수고와 봉사가 필요한데 현재는 45명 정도의 기자가 교회 안의 거의 모든 사역(교회학교 포함)과 소식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열악한 상태이다.

함줄함을 부는 매주일 낮 11시에 5층 영상미디어실에서는 편집회의를 갖고 다음 일주일에 실을 기사들에 관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이창현 목사를 지도목사로, 박의일 전도사의 협력과 정해춘 안수집사를 부장으로, 신지민 편집팀장과 삽화를 맡고 있는 허진 자매와 전수경 자매 그리고 김영미 집사가 취재기자로 함께 일하고 있다.

기자라 하면 왠지 부담을 느끼며 어렵게 생각하지만, 교회신문이 나올 때가 기다려지며 애착을 갖게 되는 교우들, 신문을 펼칠 때마다 무엇인가 더 말해주고 싶은 안타까움이 드는 교우들, 책을 읽기 좋아하는 감성이 있거나 취재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교우 등, 자신이 함줄함에 관심이 가는 마음이 있다면 주일 낮 11시에 5층 편집부실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수시로 내놓았던 비둘기처럼, 교회와 교인들 마음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동료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크다. 함줄함을 신문을 통해 교우들과 세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날아오는 희망의 비둘기의 심정으로 매 주일 신문을 발행하며 함께 섬길 의욕적인 봉사자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전수경 기자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면?

낙엽을 장사지내고 가을을 보내니 별안간 생활이 없어진 것도 같고, 새 생활이 와야 할 것도 같은 느낌이 생겼다. (작가 이효석의 「낙엽기」 중에서)

〈지나온 세월〉

“아, 아, 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지나간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노을에 아롱져 이지러진 조각 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어머니는 소리 내지 않고 옆에 누운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를 물고 눈물이 귓속으로 흘러들지만(중략) 어둠 속에서 홀로 우는 여자(중략), 가끔 밭일을 버려 둔 채 바닷가에 혼자 앉아 하루를 보내고..(중략). 때론 물살에 맡겨 두어야 하는, 사람의 고단함을, 젊음 날의, 그 노래처럼 바닷물이 출렁출렁 당신 대신 목메어 주는지...”

소설가 한강씨가 모 일간지에 쓰신 ‘어머니의 노래’란 글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실은 글로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육적, 영적으로 많은 위기와 곤고함이라는 고비를 겪으면서 살 때가 흔히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으로부터, 선배로부터,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훌륭한 교훈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나 곤고함이 닥칠 때마다 슬퍼하고 원망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잘 보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 세월〉

1. 바른 교제의 삶을 살고 싶다.

기독교는 윤리성을 가지는 종교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성도의 생활이요 곧 신앙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개성과 지식의 차이, 직업과 연령 및 환경이나 취미 등의 다양한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제하면서 불화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수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목숨이 있는 한 전력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라. 2)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거나 욕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3) 걱정 근심거리나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말라. 4) 복수심에 의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5)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창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사용하며 시간을 아끼라.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러기에 바른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즐거움 속에서 참다운 교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자칫 이기적인 교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가 유익을 얻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생활을 하고 싶다. 믿음은 어떤 사건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분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똑똑하다는 우리가 물욕과 명예와 허세의 포로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사랑과 소망의 세계에서는 나눈다고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의 세계의 계산이지요. 가슴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숨쉬는 순간마다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체해 나감으로 소망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용기를 심어 주시는 주님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곳곳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 새로움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시편 110:3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12제자들을 가리켜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 이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 20대의 왕성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각기 성격이 상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의 무리한 모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기독교는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때 주님은 가장 젊고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스스로 연단케 하시고 마땅한 몫을 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입증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열 두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새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 모두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 문턱을 높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정통성을 이어 가면서도 젊은 세대를 위한 폭넓은 변질이 아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인 ‘조은’은 그의 시집 ‘따뜻한 흙’을 통하여 어긋나 버렸던 지난 날의 여정을 더듬으며 상처받은 삶을 포근하게 안아 주면서 새로운 삶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푸르렀던
내 안의 것들아
누추한 것들에 발이 묶여
빛을 잃은 것들아
실낱같은 정신의 한 끝을 물고
크게 날개를 저으며
새들은 돌아온다 ‘라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로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옵소서.’라는 노래로 새로움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아기 예수여

정해춘 안수집사

등근 해와 더불어 태백산 너머로
황금빛 아침을 물고 오시는 이여!

루돌프와 이야기하며
조용히 썰매타고 오시는 이여

우는 자에게 역전의 소식을 전하러
위로의 편지로 오시는 이여

매미가 할퀴고 간 상처로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도

광화문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덮고
노숙자로 전락한 이에게도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서 기적소리를 들으며
고향가는 꿈을 꾸고 있는 자에게도

백통째 이력서를 써내고
하늘을 우러르는 젊은이에게도

수능고사를 닳으며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3 수험생에게도

참을 수 없는 가난으로 깨어진 가정에도
독거 노인과 소년 소녀 가정에게도

아기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포시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 위로 자국만 남기며

상처 싸매주고 치료하러 오시는 이여
주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마지막 재기할 수 있는,
나락으로부터 비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고

새벽 어둠 속에서 환한 등불로 오시는 이여
손을 내밀어 꿈으로, 위안으로,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교회소식}

1. 성탄행사 및 송구영신 예배

성탄축하 음악회가 12월 24일(수) 오후 8시에 시온과 살롬 연합 찬양대 주관으로 대예배실에서 헨델의 메시아 곡 발표회가 있고, 성탄 축하 연합예배가 1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수) 오후 11시 30분부터 드려지고, 1월 1일 신년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2. 자원봉사 박람회

교회내에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2월 28일(주일)에 1층로비에서 자원봉사 박람회를 갖습니다. 이번주에 주보와 함께 배부된 자원봉사안내지를 보시고 기록하셔서 다음주일 자원봉사연결데스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 교회학교 교사 지원

2004년 교회학교를 함께 섬기고 봉사할 의욕적인 예비 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에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교회의 다음세대를 준비하며 키우는 일에 동참합시다.

4. 목요모임 안내

매주 목요일 7시에 중예배실에서 목요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5일(목)에는 목요모임을 쉽니다. 그리고 1월 1일(목)은 2004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 드립니다. 문동학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30-40대 직장인들과 청년들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하기 원하는 장년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JESUS GENERATION

12월27일 오후6시 중예배실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2:17)

고등부에서는 12월27일 오후6시에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JESUS GENERATION’이라는 찬양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3년을 인도하시고,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고등부가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JESUS GENERATION! 자꾸만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이 세대의 문화를 뛰어넘어 이 세대 안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며, 세속적인 세대 풍조에 휩쓸려가는 청소년이 아닌 패역한 세대를 거스려 살아가는 예수세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가득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예수세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격려해주는 귀한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1. 올네이션스의 성탄 축하 경배와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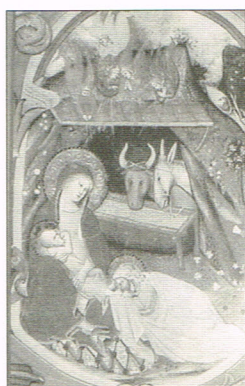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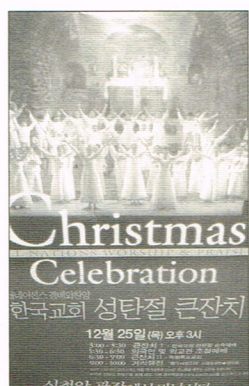
“Christmas Celebration” (한국교회 성탄절 큰 잔치)이 12월 25일(목) 오후 3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2. 시온 살롬 연합 찬양대의 헨델의 메시아 공연

주님의교회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시온과 살롬 찬양대 연합과 멜로 매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헨델의 메시아(1부 예언과 탄생) 공연이 12월 24일(수)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해바라기의 송년 맞이 “아름다운 콘서트”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를 연 적이 있는 해바라기의 “아름다운 콘서트”가 12월 30일 16:00와 20:00 그리고 12월 31일 16:00와 20:00에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교회학교 예배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1	9:30-10:30	영아부실(지하1층)	취학전(7세이하)
통합유아부 2	13:30-14:30	영아부실(지하1층)	취학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취학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중등부	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1부)	7:30-8:30	유년부실(1층)	고등학생
고등부(2부)	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3. 주일 점심식사 안내

매주 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5.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모임 또는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6.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